

사회

“自私高 반납” 학생 인질극

보문고 “교사특채 약속 안 지켜졌다” 광주교육청 “전임 교육감 잘못된 행정”

광주 보문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운영 1년 6개월 만에 재정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납하기로 해 학생들의 장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법인의 이해를 최우선하는 무책임한 처사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교에는 내년 입시를 앞두고 있는 2학년 220여명과 1학년 220여명이 재학중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광주시교육청이 보문고의 자사고 지정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지 불과 8일 만인 지난 10일 자사고 유지와 폐지를 결정하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이 사안을 단지 행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반납 사태 왜? = 보문고

측은 “지난 2010년 3월 자율고 지정 당시, 광주시교육청이 16명의 과목별 과원(過員)교사를 공립교사로 특채한다고 조건을 명시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데다 재정부담이 겹쳐 자사고 지정해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전학보장 등 재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1,2학년 500여명이 타 학교로 전학하기도 수월치 않은 데다, 2학년의 경우 당장 내년 수능을 앞두고 있어 학교를 옮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2011년 12명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모두 16명을 공립교사로 특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2010년 11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전임 교육감 때 한 약속이 적법하지 않은 행정행위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보문고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자율고, 특목고에 대해 부정적인 시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이 지난 10일 자사고 유지와 폐지를 결정하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심의위원회’를 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 심의에서 자사고 폐지가 결정되면 교파부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게 된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원회는 자율형 사립고 유지를 바라는 학부모의 주장

과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학교측의 입장이 맞서면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보류했다.

◇사태 수습 가능성도=장휘국 시교육감은 지난 11일 보문고에서 학부모들과 면담을 갖고 학교 측이 요구한 과원교사 특별채용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장 교육감은 학교 측에서 요구한 과목별 과원교사 16명에 대한 특별 채용은 위법 사항이므로 들어줄 수 없으며, 대신 학급 수 감축을 통해 과원교사 특채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보문고=1974년 학교법인 보문학숙(설립자·이사장 정형래)으로 출발, 광산여고(1974년)를 거쳐 보문여고, 보문고로 교명을 변경했다. 지난 2010년 4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다. 올해까지 졸업생 1만5675명을 배출했다.

저소득층 학생 울리는 광주교육청

방학중 급식예산 지각 편성... 1만7000명에 “학교 나와 우유 타가라”

광주시교육청과 시청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학중 학교에 나와 우유를 타 가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양 기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존심을 고려, 배달 업체에 가정으로 우유를 배달하도록 위탁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가 연초에 예산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학중 무상 우유급식이 보류됐으나, 뒤늦게 예산을 마련해 급식을 시행키로 해 최근 초·중·고교에서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에게 전화해 걸어 우

유를 받아가도록 하고 있다. 급식 대상 학생은 초·중고 1만6700여명이다.

그러나 우유를 배달해야 할 대리점 측은 휴가철이 겹쳐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유값이 개당 380원으로 20개를 감안하더라도 7800원에 불과한데도 배달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별도 인력을 고용해 우유를 공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지경이 되자 일부 학교에서는

영양교사가 직접 부모에게 우유를 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공짜 우유 먹는 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힐것을 우려해 우유급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방학 중 우유급식 계획은 없었는데 급식에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광주시가 뒤늦게 예산을 확보해 불가피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작살총 위험 소주병 상해’ 상습 주폭 구속

술에 취해 작살총으로 위협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마술주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보성경찰은 12일 술에 취해 같이 술을 마시던 A(52)씨를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위모(45)씨를 구속했다.

위씨는 지난 7일 보성군 보성읍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이마를 소주병을 깨 A씨에게 휘둘러 목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위씨는 전과 14번으로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작살총으로 동네 주민을 위협하는 등 평소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

둘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주취폭력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딸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해 영장을 기각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위씨가 구속영장 재청구 하루 전인 지난 7일 다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중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1년새 위내시경 검사 58차례 받은 주부

수면마취제 중독·입건

수면내시경검사를 핑계로 항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수십차례에 걸쳐 주사받은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2일 병원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은 주부 김모(31)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광주와 화순 지역 병·의원 51곳에서 수면내시경을 핑계로 모두 58차례에 걸쳐 680cc 가량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수면내시경검사를 사용하는 수면유도제를 투여하면 일시

적으로 피곤함이 사라지고, 깨어날 때 쾌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상습적으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독증상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11월 중순께는 하루에만 6곳의 병·의원을 찾아 6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주사를 맞았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검사비(3만~6만원)를 내지 않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인 여성이 1차례에 8~9cc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것과 달리 김씨는 중독증상으로 1차례에 20cc를 맞아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부안서 철인3종 참가 선수 숨져

12일 부안에서 개최된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한 선수가 수영 경기 도중에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철인 3종(트라이애슬론) 경기에 출전한 한 오모(55·목포시·교사)씨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었다.

오씨는 대회 심판관 등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신호 기다리던 주부 기습 민진 영문 모

○=황단보도에 서 초등생 아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30대 주부의 가슴을 만지작거린 영문 모(30)씨가 경찰서행.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3)씨가 지난 11일 밤 10시께 광주서부경찰서 서구 광천동 한 횡단보도에서 A(여·36)씨의 가슴을 한차례에 만졌다는 것.

○=A씨는 이날 아들(7)과 함께 물건을 사기 위해 외출했다가 만취상태에서 귀가중이던 김씨에게 봉변.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트레일러 대 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